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7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11일 (음력 8월 2일) 화요일

## ‘500억 피해’ 신안 양식장 복구비 지원 ‘비상’

### 전남도, 피해 어가 41% 입식 신고 안해 재해판정 받아도 법적 지원 못받아

### 16%만 재해보험 가입...고수온 판정 아닌 다른 질병 원인이면 지원 전무

전남 신안 양식장의 전복과 어류의 집단 폐사 피해 규모가 5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피해 어가의 복구비 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피해 신고 어가의 40%가량이 어패류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재해판정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흑산도 일대를 중심으로 신안지역 318어가에서 전 복과 어류 4600만 마리가 폐사해 49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신안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정밀의뢰를 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피해 신고 어가 중 상당수가 키우는 어패류의 양, 이른바 입식량을 신고하지 않아 복구비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전체 318 피해 신고 어가 중 133어가(41.5%)가 입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액 기준으로 110억원에 달한다.

이번 피해 원인이 고수온으로 판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의 50%는 국가보조, 30%를 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어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여기에 고수온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원인이 판명될 경우 입식신고 어가 역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입식신고 185어가 중 29어가(16%)만 재해보험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정확한 피해 조사와 수급량 조절 등을 위해 양식 어패류의 입식 신고제를 도입했다.

입식 신고는 재해 복구비 지원과 재해보험 가입에 필수 조건이지만 평균 가입률은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 일대 양식장의 우럭이 26일 고수온으로 집단폐사해 있다.

60% 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입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해 발생이 점점 많아지면서 피해에 대비한 양식 어패류의 입식 신고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추석 앞두고 가격 오르는 과일  
추석을 2주일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소비자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불철 이상 저온 및 여름철 폭염 등으로 과일의 발육이 저조하면서 출하량도 감소해 추석 대목에 주요 과일 도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장흥서도 키조개 대량 폐사 잇따라

### “고수온 추정” 정확한 원인분석 중...재해보험가입 대상도 아냐

장흥에서 고수온 때문으로 추정되는 키조개 폐사 피해가 잇따라 양식어가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국내 최대 키조개 주산지인 장흥 인양면 키조개 양식장 200ha가운데 폐사 등 45ha(22.5%)에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신고 45ha(213만마리) 중 75%(34여ha·153만 마리) 가량은 키조개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키조개 생육의 적정 수온은 20~25도이지만, 최근까지 장흥 앞바다의 수온은 최고 32도까지 치솟았다.

폐사가 되지 않은 키조개도 생육 부진이 극심해 상품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키조개는 재해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어서 양식 어가의 애를 태우고 있다. 장흥군은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정확한 원인규명을 의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피해가 고수온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남해수산연구소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비정

“우리당이긴 하지만 철책사니 없는 어떤 분(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정치인으로서 한없이 부끄럽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설립을 주조받았다. 두 사람은 한때 ‘절친’으로 알려진 사이다. 무슨 사면일까 발단은 이렇다. 김 원내대표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신학교) 설립에 합의했다. 동시에 인근 학교 동래합계학교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활용키로 했다. 애초 특수학교 설립 부지에 한방병원을 짓기로 한 것은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원내대표의 2년 전 총선 공약이다. 나 의원은 “이번 합의는 한마디로 나쁜 합의, 있을 수 없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그대 없인 못 살아

김성태



나경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더라...

박지원

湖南新聞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 2018 A로의 초대

## 강진만이 기다립니다

